

# 芭蕉의 發句에 나타난 季語 연구

— 새를 중심으로 —

宋仁順\*

---

## 目次

---

1. 서론
  2. 계절별 動物의 季語 分析
  3. 계절별 새의 이미지
  4. 결론
- 

## 1. 서론

自然과 벗하여 平生을 放浪하며 자연을 읊은 바쇼가, 자연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動物에 대한 구를 어떻게 읊었으며, 동물을 통하여 어떤 이미지를 表出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人間과 더불어 동물은 자연의 일부이고, 나아가 인간과 喜怒哀樂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쇼는 자신의 감정을 동물에 실어 구로 읊었다.

예를 들어, 바쇼는 時雨를 계어로 사용한 690 번의 구(690 개지 잠자리 개도 겨울비 맞는가 밤 울음 소리, 草枕犬も時雨かよるのこゑ)에서 개(犬)의 소리를 들어 자신의 쓸쓸함을 읊는다. 개 짖는 소리를 靜寂을 깨는 시끄러운 소리로 듣지 않고, 겨울비의 쓸쓸함을 吐露하는 소리로 듣고 있다. 바쇼 자신도 이미 겨울비의 쓸쓸함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짖고 있는 개도 나와 같이 겨울비의 쓸쓸함에 울고 있구나'라는 의미이다. 바쇼의 외로움이 개로 상징되는 자연과 一體를 이루고 있다. 바쇼가 주변에 너무 흔해서 간과할 수도 있을 개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쇼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었다. 바쇼는 개와 외로움을 共有하고 있던 것이다.<sup>1)</sup>

바쇼는 위와 같이 가축 중에서 가장 친근한 관계에 있는 개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였으나, 개를 季語로서 사용한 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바쇼가 계어의 선택에서 왜카 이래의 오래된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詩文學에서 봄에 피는 꽃이나 여름에 우는 두견새의 소리, 그리고 가을 밤 하늘에 떠 있는 꽃, 겨울에 내리는 눈은 특별히 사계절을 대표하는 景物로 취급되어 왔는데, 바쇼의 ほと쿠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계어로 취급되어왔다. 바쇼가 동물 중에서도 유난히 새를 많이 읊었고 새 중에서도 특별히 두견새를 많이 읊었다는 것은 바쇼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계어를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쇼가 두견새 외에도 다른 많은 종류의 새들을 읊었다는 사실

---

\* 수원대학교 강사 日本古典文學

1) 졸고「바쇼의 ほと쿠에 나타난 비의 이미지」『일본연구(19)』(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 12) p.113~13

이다. 바쇼의 새에 대한 계어를 조사해 보면, 20여 가지 정도로 표현되고 있고, 두견새는 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새에 대한 계어를 사용하여 약 48구의 홋쿠를 읊었는데, 이 중 두견새에 대한 구는 17구로 나타났다. 두견새에 대한 구가 많기는 하지만, 두견새 이외의 새에 대한 홋쿠도 약 30구 정도를 읊었던 것이다.

본 고에서는 바쇼가 가장 많이 읊은 두견새의 이미지를 정리하는 한편, 그밖에 읊어진 다른 새들의 이미지도 함께 연구함으로써 바쇼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새에 대한 계절별 이미지를 찾아보면서, 바쇼의 自然觀을 연구하는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바쇼의 홋쿠 중 動物에 속하고 있는 季語를 계절별로 살펴본 후, 바쇼의 새에 대한 句를 분석하여 새에 내포되어 있는 계절의 意味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만 바쇼만의 독창적인 이미지의 세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섬세한 작업, 즉 예를 들면 蕉風前 시대라 할 수 있는 貞門·談林 시대의 작품 세계와 바쇼의 작품을 비교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하나, 논문의 내용이 방대해 지고 산만해지므로 타 작가와의 비교 부분은 다음 논문으로 기약하고 여기에서는 바쇼의 홋쿠 속에서 드러나는 계절별 이미지 비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2. 계절별 動物의 季語 分析

바쇼는 <표 1>에서와 같이 자신의 홋쿠 842 구<sup>2)</sup> 중 11.3%에 해당하는 95구를 동물과 관련 있는 계어를 사용하여 읊었다. 특히 新年에는 동물 계어 홋쿠가 전혀 없으나, 여름에는 여름에 속한 홋쿠 204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44구를 읊어 총 홋쿠수 대비 동물계어 홋쿠수가 가장 많은 계절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을과 겨울에는 동물계어 홋쿠의 수가 여름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름이 다른 계절과 다르게 동물 계어 홋쿠의 수가 많은 것은, 다음의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새에 대한 구가 많기 때문이다.

<표 1> 바쇼의 홋쿠에 나타난 동물계어 홋쿠수

계절 \ 홋쿠수	바쇼의 총 홋쿠수	동물 계어 홋쿠수(총홋쿠수대비)
신년	23	0(0%)
봄	179	26(14.5%)
여름	204	44(21.6%)
가을	255	15(0.6%)
겨울	181	10(0.6%)
계	842	95(11.3%)

동물 계어 홋쿠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본 것이 <표 2>이다. <표 2>는 바쇼의 홋쿠에 나타난 동물의 계어를 세시기 분류에 의하여 나누고, 각 계절에 속한 동물의 계어를 짐승·곤충·새·물고기·해충·기타 등으로 크게 나누어 수치화 것이다. 봄과 여름이라는 時點에 동물의 계어를 많이 사용한 것이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물에 대한 계어는 신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읊어지고

2) 大谷篤藏·中村俊定, 『芭蕉句集』(日本古典文學大系45), 東京岩波書店, 1979, p.17~241 에 나와 있는 바쇼의 홋쿠를 세어 수치화 한 것이다. 句의 해석도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 井本農一·堀信夫·村松友次 校注·譯者『松尾芭蕉集』(日本古典文學全集41)小學館, 1988, p.45~282 를 참고하여 하였다.

있으나 특히 봄과 여름에 집중하여 다른 계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구를 읊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새에 대한 계어가 다른 계절에 비해 봄과 여름에 많이 읊어졌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동물의 종류를 주목해 볼 때, 특히 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동물에 관한 계어 95구 중에 새에 대한 계어를 사용하여 읊은 구가 48구로 50%를 넘는다. 바쇼가 동물 중에서도 새에 대한 계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구를 읊었다는 사실은 바쇼가 새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새가 가장 많이 읊어진 여름은 물론이고 다른 계절에도 여타의 동물에 비하여 새가 대부분 가장 많이 읊어졌다는 사실이다.

<표 2> 바쇼의 95구 중 나타난 동물계어 95구

동물	계절	신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새	·	·	13	23	6	6	48(50.5%)
곤충	·	·	5	10	7	·	22(23.2%)
짐승	·	·	3	2	1	·	6(6.3%)
해충	·	·	·	4	·	·	4(4.2%)
물고기	·	·	4	3	1	4	12(12.6%)
기타	·	·	1	2	·	·	3(3.2%)
합계	·	·	26(27.4%)	44(46.3%)	15(15.8%)	10(10.5%)	95(100%)

<표 3> 바쇼의 95구 중 나타난 계절별 새 관련 95구수와 계어수

계절	신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어	구수	계어	구수	계어	구수	계어	구수	
새	·	·	鶯	2	時鳥	17	雁	1	鷹	2
			雲雀	3	郭公	1	鶉	2	鴨	2
			燕	1	老鶯	1	稻雀	1	千鳥	2
			雉子	3	行々子	1	渡鳥	1		
			婦雁	1	水鷄	3	四十雀	1		
			雀	1						
			鳥の巢	2						
합계	·	·	13	23	6	6				

위의 <표 3>은 바쇼의 95구 중 나타난 계절별 새 관련 95구수를 수치화 한 것인데, 바쇼가 계절별로 참으로 다양하게 새의 계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바쇼는 총 20개의 새에 대한 계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두견새가 눈에 띈다. 봄에는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은 종류의 새에 대한 계어를 사용했고 겨울에는 그 계어수가 현격하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름에는 사계절 중에 새에 대한 계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두견새를 많이 등장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견새를 계어로 하는 95구수는 여름 95구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체 새에 관련된 95구수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여름에는 두견새라는 전통적인 계절감을 바쇼도 존중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 3. 계절별 새의 이미지

### 3.1 봄

모든 생명을 출발시키는 봄은 출발의 의미와 함께 만남의 상징성을 가진다. 여러 고전 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이 만나 인연을 맺게 되는 계절적 배경은 대개 봄이다.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계절도 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배경 설정은 봄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면서 시작의 계절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바쇼의 구에서는 출발이나 만남의 의미는 없다. 도리어 이별(69번)의 계절이고 따라서 쓸쓸함(71)과 그리움(66)의 계절 방향하느(72) 계절이다. 69번 구는 바쇼가 1672년에 만든 구로서 官을 辭하고 친구와도 헤어져 京都로 향하고 있을 때 지은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의 소원함을 ‘구름을 사이에 둔 친구(雲と隔つ友)’라고 흔히 말하는데, 봄이 되자 친구와 헤어져서 등지(雲居)로 돌아가는 기러기야말로 문자대로 구름을 사이에 둔 친구가 아닐까하고 읊고 있는 것이다. 歸雁에 자신을 비유하여 친구와 헤어져서 江戸로 가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하고 있다. 71번 구는 1686년에 지은 구로서, 전서로서 ‘桑門宗派行脚せんとてたび立けるを送る’가 있다. 이웃하고 있는 초암의 獨居僧이 여행을 떠나고 난 후의 쓸쓸함을, 새가 떠난 후의 등지에 비유했다. 72번 구는 1691년 작품으로서, 새가 등지의 소재를 잃고 우는 모습을 읊고 있다. 66번 구처럼 봄에 우는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찬란함과 새봄의 희망을 느끼기보다는 작고한 부모를 생각하며 눈물짓는 심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구는 승려 교키(行基 668~749)가 지은 와카를 패러디한 것<sup>3)</sup>으로서, 꿩의 소리에 작고한 부모에 대한 思慕의 정을 실었다. 산새(山鳥)를 꿩으로 바꾼 것은 ‘燒野の雉野の鶴에 의한 것<sup>4)</sup>으로 보인다. 老木이 울창한 高野山 깊은 곳에 멈추어 꾸룩꾸룩 울어대는 꿩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듣자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장면이다.

- 구름으로 가로막힌 친구인가 기러기의 생이별  
 69 雲とへだつ友かや雁の生き別れ  
 옛 등지 그저 쓸쓸해졌네 이웃이구나  
 71 ふるす只あはれなるべき隣かな<sup>5)</sup>  
 어둔 밤이여 등지를 잃어버려 우는 물떼새  
 72 闇の夜や巢をまどはしてなく鶴  
 엄마 아버지 끊임없는 사랑의 꿩 울음소리  
 66 父母のしきりに戀し雉子の聲

바쇼는 봄의 새 소리를 듣고 때로는 오싹해지기까지 한다. 바쇼에게 봄은 생명의 탄생이나 그에 따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아니고 천적의 자연법칙이 존재하는 계절이다. 67번 구는 1690년에 지은 구로서 꿩이 뱀을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꿩의 소리가 무섭게 느껴진다고 노래하고 있다. 옛부터 꿩의 울음소리하면 ‘마음을 적시는 애닦은 것’으로서의 소리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꿩의 이미지도 짝 찾는 꿩이나 자식 생각하는 꿩 등 부드러운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는데, 바쇼는 그와는 다르게 뱀을 먹는 꿩, 즉 자연의 먹이사슬을 생각하며 꿩의 소리를 듣고 두렵다는 솔직

3) 山鳥のほろほろと鳴く聲聞けば父かと思ふ母かと思ふ<玉葉・19・釋教・2614・行基>

4) 永田義直編著, 『古今俳句の鑑賞』, 金園社, p.67

5) 井本農一・堀信夫・村松友次 校注・譯者『松尾芭蕉集』(日本古典文學全集41)小學館, 1988, p.101에 의하면, 71번 구는 계어(季語)가 ‘ふるす’로 되어 있다.

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뱀 먹는다고 들으니 소름 돋는 꿩 울음소리  
67 蛇くふときけば恐ろし雉子の聲

『古今集』序에 ‘꽃에 우는 휘파람새(花に鳴く鶯)’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휘파람새는 이후 和歌 등 傳統의 세계에서는 ‘매화나무 가지에서 우는 휘파람새’로서 읊어져 왔다. 그러나 바쇼는 매화나무 대신 새똥(糞)을 써서 구를 완성하고 있다. 또한 ‘휘파람새는 옥 구슬이 구르듯이(鶯は玉を轉ずるが如く)’라는 말이 있듯이 휘파람새의 소리는 아름답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바쇼에게는 찬란한 자연을 찬미하는 등의 휘파람새의 멀리서 우짖는 은은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휘파람새가 매화 나무에 앉아서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 가까이에서 짓궂게 말쑥을 피우는 개구쟁이 짓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휘파람새뿐만 아니라 제비도 그렇다. 이제 곧 따뜻한 계절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으로서의 제비는 없고 마시고 있는 술잔에 흙탕물을 떨어뜨리고 날아가는 제비가 있다. 1688년의 65번 구는 바쇼가 길가 찻집 뒷마루에서 잠깐 목을 축이고 있었을 것으로 상상이 되는 구이다. 일본 시가에서 전통적으로 술잔에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온 것은 운치 있는 매화 꽃잎이었는데 바쇼는 이것을 흙탕물(泥)로 바꿔버렸다. 1692년의 61번구는 봄 별 화창한 뒷마루 끝에 찰떡을 말리고 있는데, 휘파람새가 날아와 새똥을 떨어뜨리고 간다는 의미이다. 두 구 모두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새의 모습은 간 데 없다. 마시는 술잔 위에 흙탕물을 떨어거나, 말리고 있는 뒷마루의 떡 위에 새똥을 떨어뜨리는 장면은 인간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함께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친근한 이웃 사촌 같은 모습이다. 자연과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모습이 아닌 자연과 일체가 되어 있는 바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구는 새(제비떼·휘파람새)가 먹는 것(술잔·떡) 위에 더러운 것(흙탕물·새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61번 구보다 몇 년 뒤에 쓰여진<sup>6)</sup> 61번 구는 더러운 것의 정도가 흙탕물에서 새똥으로 그 정도가 심해 졌다는 것이다. 즉, 61번 구는 65번 구의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술잔과 휘파람새는 일본의 전통적인 시가에서는 매화와 관련이 있는데 바쇼는 매화를 배제하고 卑俗의인 흙탕물을 사용했고 나아가서 卑俗의 極致라 할 수 있는 ‘똥’을 사용하여 봄의 기운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술잔에 흙탕물 떨어지 말게나 제비떼들아  
65 盃に泥な落しそむら燕  
휘파람새여 떡에 새똥 떨어지는 뒷마루의 끝  
61 鶯や餅に糞するえんの先

바쇼의 새는 화려한 꽃 나뭇가지에 앉아 아름답게 노래하기보다는 버드나무나 덩굴에서 함께 지저귀는 새이고(60) 혼자 호젓하게 노래하는 새가 아니고 다른 새들과 함께 박자 맞춰 울거나(68), 쥐구멍 속의 쥐 소리와 소리를 섞는(70) 모습으로 나타난다. 60번 구는 1692년에 지은 구로서 휘파람새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휘파람새가 버드나무 뒤쪽에서도 대나무 숲 앞쪽에서도 들려온다. 조용하고 한가로운 전원풍경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6) 65번은 1687년(바쇼나이 44세), 61번은 1692년(바쇼나이 49세)에 쓰여졌다.

자유로운 휘파람새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쇼의 여유로운 마음이 들어있다. 전통적으로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의 비유로서 ‘휘파람새에 매화(梅にうぐいす)’라는 표현이 쓰였으나 화려한 매화대신에 버드나무와 덩굴을 넣었다. 1689·90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68번 구에서 拍子は能樂 용어로서 피리·북 등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종달새가 울고 있는 동안에 때때로 날카로운 쾩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謠曲 사이에 맞춤소리(かけごえ)와 함께 날카롭게 연주되는 악기소리를 떠올리고 있다. 새들의 합창소리를 인간들이 만들어낸 소리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새 소리를 통하여 인간의 소리를 듣고 있다. 1691년의 70번 구는 새소리에 쥐새끼 소리를 섞어서 듣고 있다. 처마 밑 등지의 참새 새끼와 천장 속의 쥐새끼소리가 너무나 비슷하게 섞여서 들려온다는 구이다. 쥐라는 동물의 습성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동물인 이상 쥐새끼의 소리는 결코 아름다운 소리는 아닐 것이다. 앞의 67번 구에서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恐ろし)의 느낌과는 다른 징그러운 소리이다.

- 휘파람새여 버드나무 뒤에도 덩굴 앞에도  
 60 鶯や柳のうしろやぶのまへ  
 종달새 울음 함께 박자 맞추네 쾩 울음소리  
 68 ひばりなく中の拍子や雉子の聲  
 참새 새끼와 우는 소리 섞이는 쥐구멍 소리  
 70 雀子と聲鳴かはす鼠の巢

바쇼는 종다리를 계어로 사용한 구에서는 종다리라는 새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구를 지었다. 62번 구는 1687년 작품으로서 하루종일 우짖는 종다리의 특징을 읊고 있다. 새가 계속 운다는 뜻의 ‘さえずる(囀る)’라는 단어를 종다리에만 쓰고 있다. 같은 해에 쓰여진 63번 구에서 原中는 넓은 들판을 의미한다. 무엇에도 걸릴 것 없는 하늘 높이에서 춤추며 비상하여 지저귀는 종다리의 소리를 표현했다. 64번은 1688년 작품으로서 아득하게 높은 고개 길에서 종달새 소리를 들으며 읊은 구이다. 이 구는 봄철에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종달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긴 하루 날 채 못다 지저귀는 종다리구나  
 62 永き日もさへづりたらぬひばり哉  
 들판 가운데 거침없이 들리는 종다리 소리  
 63 原中や物にもつかず鳴く雲雀  
 종다리보다 허공에 쉬고 있는 고갯마루야  
 64 雲雀より空にやすらふ峠哉

### 3.2 여름

바쇼가 두견새를 계어로 하여 쓴 구는 몇 개의 이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쇼는 309번 구에서 ‘夏のほととぎす’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여 두견새가 여름의 風情있는 風物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부터 두견새는 여름을 알려주는 새로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모심기나 5월 따위와의 연상도 강했다<sup>7)</sup>. 309번 구는 1689년 작품으로서, 매마침 여름인데 모내기 한 논이랑 보리 등의 여름 風物

7) 時鳥鳴くや五月のあやめ草あやめも知らぬ戀もするかな(古今集) 재인용

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견새의 소리만이 여름의 가장 으뜸가는 風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1692년의 작품으로서 두견새가 5월의 새라는 것을 의식하며 지은 314번 구가 있다. 이는 『古今集』의 와카 ‘時鳥鳴くや五月のあやめ草あやめも知らぬ戀もするかな<sup>8)</sup>에서 ‘5월의 창포 잎사귀(五月のあやめ草)’를 ‘5척의 창포잎사귀(五尺のあやめ草)’로 바꾸어 구를 만든 것이다. 하늘에는 두견새가 우는 5월인데, 지상에는 창포가 쭉쭉 자라 5척이나 되었다는 의미이다.

논이든 보리 뛰니 해도 여름은 두견새 소리  
 309 田や麥や中にも夏のほとゝぎす  
 두견새 우네 5척이나 자라난 창포 잎사귀  
 314 時鳥啼くや五尺のあやめ草

바쇼는 두견새의 소리<sup>9)</sup>를 고대하는 심경을 드러내는 구를 많이 지었다. 일본의 시가에서는 두견새의 ‘처음 소리’를 중시하였다. 두견새는 두견과에 속하는 철새로 그 울음소리가 특이하며, 장마 때에는 주야를 불문하고 울어대는 새로서, 일본에서는 고래로 문인들에게 잘 읊어진 새로서 알려져 있다<sup>10)</sup>. 두견새의 ‘처음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는 노래가 많이 있는데, 처음소리라는 말은 보통 두견새와 휘파람새에만 통하는 말로서, 소리듣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初音이라고 했다 한다. 301번 구는 1680·81년 작품으로서 ‘무리 지은 보리 이삭(麥のむら尾花)’이 바람에 파도치듯이 일렁이는 것을 보고, 마치 그 모습이 두견새를 손짓하여 부르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むら尾花’는 이삭이 나온 ‘꽃이 핀 억새의 무리’를 가리킨다. 꽃이 핀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와카에서는 ‘(사람을) 부르다·손짓하다(まねく)’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꽃이 핀 억새는 바람에 흔들리며 사람을 부르고 있지만 무리 지은 보리 이삭은 두견새를 부르고 있는 듯하다는 의미이다. 303번 구는 1682, 83년의 작품으로서 음력정월에 이미 매화는 시절을 배반하지 않고 피었는데, 4월이 되어도 와서 울지 않는 두견새를 부르고 있다. 310번 구는 1689년의 작품으로서 『奥の細道』여행도중 읊은 구이다. 那須 들판을 말을 타고 갈 때, 마부가 졸라서 써 준 구로 알려져 있다. 두견새의 소리를 듣고 마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구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말 등에 올라 나스 들판을 지나는데 머리 위를 두견새가 울며 가로지른다. 그 소리를 좇아

8) 古今. 二. 戀一. 四六九. よみ人知らず  
 9) 지방에 따라서 울음소리를 ‘テッペンカケタカ’ 또는 ‘本尊掛けたか’ 등 여러 가지로 듣고 그것에 걸 맞는 방언이나 전설이 많다고 한다. 형태는 빠꾸기(곽공, 郭公) 등과 닮은 점이 많으나, 날개 길이 15센티 정도로 크기는 작다. 富安風生外6人編輯(1983) 『俳句歳時記(夏)』, 平凡社 p.410~416  
 10) 두견새가 우는 것을 와카에서는 특별하게 ‘이름을 고하다(名告る)’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あかときに名告り鳴なる時鳥いや珍しく思ほゆるかも (萬葉集、卷18)이것은 물론 두견새의 높은 소리를 가리킨 것이지만, 원래 ‘이름을 고함(名告り)’이라는 낱말은 求婚 또는 戦闘할 때에 發言하는 것으로 상대를 놀려 복종시키기 위해 하는 수단이다. 상대방의 혼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복종시키는 것이다. 5월 무렵의 하늘을 울며(名告って) 지나가는 두견새의 소리도 역시 사람의 혼을 유혹하여 끌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밤에 우는(名告る) 것이 그와 같은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불러 온다면 혼이 遊離해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한밤을 꼬박 새우며 두견새의 소리를 확실하게 귀로 듣고 놓치지 않겠다고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문인들의 두견새에 대한 열기를 끌었던 것이다. 冥途의 새라고 생각하는 음울한 연상은 일본에는 처음에는 없었다. ‘死出の田長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도 촉나라의 望帝의 혼백이 화해서 두견새가 되었다 라는 蜀魂·杜魂 등의 명칭기원설화가 전래되고 나서의 일이다. 富安風生外6人編輯(1983) 『俳句歳時記(夏)』, 平凡社 p.410~416

말머리를 돌려 다오 라는 의미의 구로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희망이 드러나 있다. 311번 구는 1690년, 바쇼가 近江의 幻住庵에 있을 때, 幻住庵에서 내려와 京都에 잠시 머물렀을 때의 작품이다. 곧 산에 돌아가기도 되어 있었기에 ‘京都가 그림구나(京なつかし)’라는 생각이 한층 더 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旅情과 回顧의 정은 두견새의 이미지와 통한다. 그 옛날 있었던 서울의 나날이 그림다고 외치는, 蜀나라의 亡弟가 죽어서 화했다는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여수와 회고의 정이 가슴에 치밀어 더욱 京都가 그리워진다는 의미<sup>11)</sup>의 구이다.

- 두견새를 부르나 파도치는 보리 꽃 이삭  
 301 郭公まねくか麥のむら尾花<sup>12)</sup>  
 두견새여 정월에는 매화 꽃 한창이었네  
 303 ほととぎす正月は梅の花さけり  
 들관 가로질러 말머리 돌려다오 두견새 소리  
 310 野を横に馬牽むけよほととぎす  
 교토 있어도 교토가 그림구나 두견새 소리  
 311 京にても京なつかしやほととぎす

바쇼는 위와 같이 여름의 새, 5월의 새로서의 두견새를 노래하기도 하고, 나아가 두견새의 소리를 그리는 마음을 구로 읊기도 했다. 五感を 모두 이용해 두견새의 소리를 온전히 듣고 싶다는 뜻 귀 뿐 만 아니라 코·눈과 연결시켜 구를 만들었다. 먼저 두견새의 소리와 향기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682, 83년에 쓴 302번 구는 두견새의 소리를 깨끗하게 듣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향을 피우는 것은 원래 부정을 씻고 모든 것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이다. 향은 냄새와 관련 있는 단어이고 당연히 코라는 신체부위와 연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에 향을 피우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향과 귀, 즉 ‘소리의 향기’가 느껴지게 한다. 두견새의 소리를 향기로운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清く聞ン’은 두견새의 소리를 듣는 것과 향기를 맡는 것 모두에 연결된다.<sup>13)</sup> 더러움을 씻어주는 향료를 귀에 배어들게 하여 선명하게 두견새의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690, 91년의 작품인 312번 구도 향기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다분히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를 완성하고 있다. 굴나무가 향기를 풍기고 있다. 때마침 두견새가 울며 지나가고 있었다. 이 두견새는 언젠가 들관에서 들었던 그 두견새의 소리가 아날까 일찍이 어딘가에서 지금처럼 들었던 기분이다 라는 의미의 구이다.

- 맑게 배이게 귓전에 향기 피우게 두견새 소리  
 302 清く聞ン耳に香燒て郭公  
 굴나무 향기 언젠가 들관에서 들은 두견새  
 312 橘やいつの野中の郭公

바쇼는 위와 같이 소리와 향기를 연결시켜 두견새의 소리를 부각시켰는가 하면, 두견새의 소리를 형상화시킨 구도 있다. 1693년에 쓰여진 315번 구는 蘇東坡의 「前赤壁賦」중에 ‘수증기는 강 위에

11) 朴順萬『日本人의 詩情 俳句篇』成文閣, P.116

12) 301번 구의 계어를 『日本古典文學全集』에서는 麥로 분류하고 있다.

13) 향도(香道)에서 ‘聞香’ ‘香を聞く’ 등의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드러누웠고 물빛은 하늘에 이어졌네(白露橫江 水光接天)라는 구절을 轉用한 것으로 보이는 구이다<sup>14)</sup>. ‘白露’를 ‘郭公聲로 換骨奪胎하였다 두견새가 날아가 버린 후 어두운 여름밤<sup>15)</sup>의 물 위에 소리만이 흔들리고 있는 느낌을 구로 표현한 것이다. 그 울음소리가 물위에 퍼져 흔들려서 마치 소리가 물위에 누워 함께 넘실대고 있는 느낌이다. 대단히 음악적이며 몽상적인 환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소리를 눈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두견새 소리 누워서 넘실대네 물살 위에서

315 郭公聲橫たふや水の上

바쇼는 두견새의 소리를 아픔의 소리, 원망의 소리로 듣고 있다. 1688년의 305번 구는 須磨에서 의 작품이다. 스마의 어부가 쓴 화살 끝을 스치며 두견새가 예리한 소리를 내며 지나치고 있는 풍경이다.<sup>16)</sup> 1689년의 307번 구에서 ‘恨の瀧’는 日光의 裏見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奥の細道』에 ‘바위 굴 속으로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 폭포의 뒤쪽에서 바라본다고 하여 우라미 폭포로 전해지고 있다(岩窟に身をひそめ入て、瀧の裏よりみれば、うらみの瀧と申伝え侍る也)라고 되어 있다.<sup>17)</sup> 도도하게 떨어지는 폭포 소리 속에 폭포의 안팎 여기저기에서 한창 울고 있는 두견새의 예리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 풍경이다. 恨の瀧에서의 우라미와 안을 뜻하는 우라(裏)라는 同音を 이용하여 원망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스마 어부의 화살촉에 우는가 두견새 소리

305 須磨のあまの矢先に鳴くか郭公

두견새 소리 섞인 우라미 폭포 안쪽과 바깥

307 時鳥うらみの瀧のうら表

바쇼는 두견새의 소리 뿐 만 아니라, 두견새의 날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구도 있었다. とぶ・消行く・落くる 등의 움직임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두견새의 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1687년 작품인 304번 구는 울면서 날아가는 두견새의 습성을 나타내고 있는 구이다. 일자를 그리며 빠르게 날아가는 두견새의 모습을 보고 바쇼는 자못 바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1688년의 306번 구도 빨리 날아 사라져 가는 두견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두견새가 사라져 가는 곳에 섬이 하나 보이고 있다. 1689년의 308번 구는 단순하게 두견새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고 하지 않고, 높은 데서 ‘떨어져 온다(落ちて來る, 落くる)’라고 표현하고 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온다 에서 ‘높은’을 뜻하는 ‘高く’는 地名인 ‘高久’를 생각하고 읊은 것이다. 高久에 도착하자 숙소이름과 같이 ‘높은(다카쿠, 高く)’ 하늘에서 두견새의 소리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의미의 구이다. 두견새가 난다는

14) ‘白露橫江’은 강 위에 누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구이지만 바쇼는 그것을 가로질러 울며 날아가는 두견새로 표현한 것이 다른 점이다. 『芭蕉句集』(日本古典文學大系45), p.99  
 15) 두견새가 우는 것은 흔히 밤이다. 『前赤壁賦』의 시구도 밤의 정경이다. 井本農一・堀信夫・村松友次 校注・譯者『松尾芭蕉集』(日本古典文學全集41)小學館 1988, p.239  
 16) 『笈の小文』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きすご’라는 물고기를 그물로 잡고, 그대로 해변가 모래 위에 너저분하게 흩어 말리고 있는 것을, 까마귀가 날아와 물고 도망가 버린다. 그것을 미워하여 활로 위협하는 것은 어부의 할 소위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혹시라도 옛 전장의 흔적이 아직 있어, 이러한 일도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더욱 죄가 무겁다고 생각된다.’ 『芭蕉文集』(日本古典文學大系 46)p.63  
 17) 『芭蕉文集』(日本古典文學大系 46) p.73

직접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으나 날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유려하게 표현한 구도 있다. 313번 구는 1691년 구로서 ‘대숲 위를 두견새가 울며 날아간다. 두견새가 앉았다 날아간 대나무가 흔들리며 그 사이로 달빛이 새고 있다’<sup>18)</sup>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두견새가 울며 울며 날으네 뿔이 바쁜지  
 304 ほとゝぎすなくなくとぶぞいそがはし  
 두견새 사라져 가는 저편이여 섬하나 우뚝  
 306 ほとゝぎす消行く方や嶋一ツ  
 떨어지누나 다카쿠 숙소의 두견새 소리  
 308 落くるやたかくの宿の郭公  
 두견새 나네 울창한 대숲 위를 달빛 새는 밤  
 313 ほとゝぎす大竹藪をもる月夜

바쇼는 말년인 1694년에 두견새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와 섞어서 표현하였다. 와카나 령가에서는 두견새와 橘花・あやめくさ・うのはな・さみだれ・早苗 등을 묶어서 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바쇼는 茶摘・鳥賊賣 등 사람과 두견새를 함께 조화시키고 있다. 1694년에 쓰여진 316번 구는 ‘차밭이다. 무성하게 우거진 차나무에 숨겨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찻잎 따는 여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때마침 두견새가 울며 지나간다. 저 소리를 찻잎 따는 여자도 들었을 것이대라는 의미의 구이다. 1694년의 작품인 317번 구는 두견새의 소리와 거리에서 오징어 사라고 외치는 소리가 함께 들려 분간하기 어렵다고 표현한다. 江戸 市中의 복작거리는 정경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으며, 시장 사람들의 물건 사라고 소리지르는 시끄러운 소리를 새 지저귀는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표현하고 있다. 바쇼는 인간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와 분간하지 못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의 한 일부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 나무에 숨어 찻잎 따는 여인도 듣네 두견새  
 316 木がくれて茶摘も聞やほとゝぎす  
 오징어 장수 외침 분간못하네 두견새 일성  
 317 鳥賊賣の聲まぎらはし杜宇

위의 두 구는 바쇼가 말년에 쓴 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 바쇼는 기존에 표현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두견새를 표현하고 있다. 이전의 구는 인간을 제외한 자연물과 두견새 소리와의 어울림이었다. 그러나 바쇼는 위의 두 구에서 인간과 두견새의 조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317번 구는 일견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 시장판의 상인 소리를 두견새의 소리와 혼동한다는 의미에서 자연과의 일체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견새는 바쇼 말년에 가서야 인간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두견새를 제외한 여름의 다른 새들은 인간세상의 표현을 위한 좋은 소재로서, 또는 바쇼 자신의 감개를 펼치는 소재로서 사용하였다. 바쇼는 두견새 외에 뜰부기・뺨꾸기・회파람새・개개비 등의 여름새를 계어로 사용하여 구를 읊었다. 이 중 뜰부기는 3구나 되는데, 모두 뜰부기의 울음소리가 갖는 특징을 읊은 구로서 그 소리는 인간의 집과 연관시켜 표현하고 있다. 뜰부기는 봄에 도래하여 초여름 무렵 물 주변의

18) 嵯峨日記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嵯峨는 대숲이 유명하다. 바쇼는 嵯峨의 료라이(去來)의 별장에 체재하며 대나무 밭의 풍정에 심취해 있다. 『芭蕉句集』(日本古典文學大系45) p.98

풀덤불에 등지를 짓고 번식한 후 가을에 떠나는 물새이다. 뜬부기의 우는 소리가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닮았기 때문에 뜬부기의 울음소리를 ‘たたく’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바쇼는 ‘たたく’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두드리는 소리를 충분히 연상시키는 구를 읊고 있다. 321번은 1689년의 작품으로서 ‘白河를 지나갈 때에 당신을 알고 있었다면 문지기인 당신의 집을 뜬부기에게 물어 방문했을 텐데’라는 의미의 구이다. 322번 구는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고독한 곳을 뜬부기도 울지 않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뜬부기도 모르는(水鶏もしらぬ)’은 ‘뜬부기도 두드리지 않는’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3번 작품은 1694년의 작품으로서 ‘뜬부기가 자주 우는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일까, 바쇼 자신은 그만 左屋에서 머물고야 말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지방의 뜬부기 소리를 즐기며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관문지기의 집을 뜬부기에게 물을 것을  
 321 關守の宿を水鶏にとはふもの  
 이 숙소에는 뜬부기도 모르는 문만 있는가  
 322 此宿は水鶏もしらぬとほそかな  
 뜬부기 운다는 어떤 이 말 듣고 사야 머무네  
 323 水鶏啼と人のいへばや左屋泊

위와같이 뜬부기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의 특징만이 읊어진 반면, 나머지 삐꾸기, 휘파람새, 개개비는 바쇼의 감개를 드러내는 구로서 읊어지고 있다. 이 중 318·320번 구는 여름날 바쇼 자신의 여유로움을 담고 있으며, 바쇼 자신의 행복관이 드러나 있는 구이다. 두 구 모두 무덥고 긴 여름 한낮의 느릿한 시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지루함이라기보다 여유로움의 정서, 유유자적하는 풍류의 도가 나타나 있다. 318번은 1691년에 쓰여진 구로서 바쇼가 어느 절에 홀로 있을 때의 구이다.<sup>19)</sup> 홀로 있는 자신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삐꾸기소리가 처량하게 들린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 울적한 내가 더 한층 쓸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삐꾸기야! 더욱 울어다오 이 적막함 속에 잠기고 만 싶구나’라는 의미의 구이다. 바쇼는 다른 차원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 즉, 獨居의 즐거움, 한적함을 사랑하는 心境을 읊고 있다. 바쇼 자신은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자연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다. 1691년 작품인 320번 작품은 더위에 지쳐 잠시 낮잠을 즐기려는 데 개개비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꼭 바쇼 자신을 깨우는 소리로 들린다. ‘나는 자는 것 밖에 달리 재주가 없는 몸으로 지금은 또한 졸려서 참을 수 없다. 그러나 개개비여, 그렇게 시끄럽게 지저귀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방해하지 말게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원한 그늘, 서늘한 바람을 즐기면서 낮잠을 즐긴다. 긴 여름 한 낮의 한가로운 정경이다. 개개비는 초여름 강가 등의 갈대밭에 등지를 틀고 5, 6월경이 번식기에는 시끄럽게 계속 지저귀는 특징이 있다.

- 울적한 나를 쓸쓸하게 해다오 삐꾸기여  
 318 うき我をさびしがらせよかんどり  
 재주도 없어 졸고 있는 나 깨우지 말게 개개비여  
 320 能なしの寝たし我をぎやうぎやうし

여름은 힘의 원천이며 젊음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쇼는 휘파람새를 통하여 오히려 늙음을

19) 『사가일기』(嵯峨일기)에는 ‘ある寺に獨居して云し句なり’라고 덧붙여 있다.

노래하고 있다. 바쇼는 1692년에 첫 겨울비라는 의미의 ‘初時雨를 계어로 사용하여 ‘오늘만이라도 노인 마음 갖게나 첫 겨울비(けふ斗人も年よれ初時雨)’라는 구를 지으며 늙음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바쇼는 겨울비의 쓸쓸한 정취가 老人의 마음과 잘 어울리고 있으며, 젊은 사람도 첫겨울비가 내리는 오늘날은 老의 마음이 되어 이 겨울비를 한껏 즐겼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 노년은 연륜이 있다. 자연과 함께 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기이다. 대상을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자세, 자연 속에 자신을 몰입하는 태도를 가지길 원하는 바쇼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구라 할 수 있다.<sup>20)</sup>

휘파람새는 春告げ鳥・老鶯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른 봄에 운다하여 ‘봄을 알리는 새 春告げ鳥’라는 이름이 붙었다. 老鶯는 여름에 높은 산에서 우는 휘파람새를 말하며 나이가 많은 휘파람새라는 의미는 아니다. 휘파람새는 봄에는 산록에 있지만 여름에는 높은 산으로 옮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쇼는 老鶯라는 이름을 생각하며 319번구를 지었다. 이 구는 1694년에 만들어진 구로서 이 해는 바쇼가 세상을 떠난 해이다. 바쇼는 같은 해 7년 5월에 에도를 출발하여 최후의 여행을 떠난다. 여행 도중에 대나무의 새순이 덩불을 이룬 속에서 어쩐지 쓸쓸하게 우는 여름 휘파람새를 보며 바쇼 자신의 감개를 담게 된다.

휘파람새여 죽순 덩불 속에서 늙음을 우네

319 うぐひすや竹の子藪に老を鳴

### 3.3 가을

가을은 농경사회에서 추수와 축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을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끝나면 고된 노동을 끝내고 풍요로움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풍요와 풍성함의 상징성을 가진다. 바쇼는 1691년에 지은 547번 구에서 벼이삭에 무리 지어 있는 참새를 통하여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가을은 새들에게도 먹을 것이 풍요롭다. 그래서 참새는 무리를 지어 날며 논을 떠나지 않는다. 벼이삭에 무리 지어 있는 참새는 쫓아내면 늘 기다렸다는 듯이 차나무 밭으로 날아가서 내려앉는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는 장면이 상상이 되는 구이다.

벼이삭 참새 차나무 밭이구나 도망간 곳이

547 稻雀茶の木畠やにげどころ

그러나, 이와 함께 가을은 만물이 衰落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을은 쇠퇴, 죽음, 인생의 무상함과 슬픔 등의 상징성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바쇼는 544번 구에서 ‘病雁・落ちて’라는 단어를 통하여 가을의 凋落美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 구는 1690년에 지은 구로서 여기서 ‘객지잡인가(旅ね哉)’의 주체는 바쇼이다. 堅田의 포구<sup>21)</sup>에서 감기기운이 가득한 몸을 가지고 추운

20) 참고 『바쇼의 훗쿠에 나타난 비의 이미지』 『일본연구(19)』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2002. 1 2) p.113~135

21) 45세 8월에는 越人と 함께 『更科紀行』 여행을 떠나 8월 에도로 돌아온다. 46세 3월에는 소라와 함께 『奥の細道』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47세 4월부터 幻住庵에 은거하고, 7월 幻住庵을 나와 9월 말까지 大津・京都 등을 유랑한다. 이 때 가을 바쇼는 교토 북동쪽의 일본 최대의 호수인 琵琶湖 서안에 위치한 堅田 근처를 여행하며 句를 남겼다.

밤을 쓸쓸하게 객지에서 잠자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때마침 머리 위를 울며 나는 기러기의 떼에서 한 마리만이 호수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포착하고는, 병들어 떨어지는 것으로 읊고 있다. 기러기는 10월경 북쪽에서 渡來하는 겨울새로서, V자 형의 編隊로 나는 모습이 특징이다. 우는 소리를 특히 ‘雁が音’라고 하여 정취있는 소리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바쇼는 기러기의 소리에 쓸쓸한 감정을 싣고 있으며, 나그네로서의 여수를 드러내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 가을은 老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바쇼는 1693년에 지은 544번 구의 박새를 통하여 노년을 생각하고 있다. 初老의 나이를 의미하는 ‘시쥬(사십)’라는 이름이 붙은 줄도 모르는 박새는 즐거운 듯이 화려하게 지저귀고 있구나 라는 의미이다.

- 병든 기러기 밤 주위에 떨어져 객지 잠인가  
 544 病雁の夜さむに落ちて旅ね哉  
 初老 이름 붙은 줄도 모르고 박새 우지네  
 549 老の名のありともしらで四十から

衰落의 상징을 가지는 가을의 중요한 소재로서 철새와 구름을 빼놓을 수가 없다. 철새와 구름 모두 ‘간다·움직인다·홀러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시간의 흐름과 떠남이나 사라짐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1694년 작품인 548번 구는 철새와 구름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가을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철새무리가 하늘을 덮으며 날아간다. 태양에 그 한 무리가 해를 가리며 걸쳐 있다. 구름인가하고 생각했는데 잠깐 사이에 개여서 철새무리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는 의미이다. 가을의 청명한 날씨와 함께 남쪽을 향하여 무리지어 날아가는 철새를 보고 있는 듯 하다. 바쇼는 이와는 다르게 날아가지 못하고 애절하게 울고 있는 담장 안쪽의 메추라기에도 시선을 두고 있다. 1690년 작품인 548번 구에는 높이 솟아 있는 오동나무를 가진 집이 나온다. 긴 담장에 둘러싸인 집안에 메추라기가 울고 있다. 이 메추라기는 키 큰 오동나무에 앉지 못하고 담장 안쪽 마당 한구석에 마련되어 있는 새장 안에 갇혀 있다. 당시에는 메추라기를 사육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여유가 있는 풍류인들은 즐겨 메추라기를 키우며 그 소리를 즐겼다고 한다. 이 구는 메추라기를 사육하고 있는 시골 집의 모습을 읊고 있다. 메추라기는 몸집이 작은 새로서 가을 바람이 부는 들뜬에서 애절하게 우는 소리가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듬해인 1691년 작품인 546번 구에서 바쇼는 메추라기의 우는 소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해질 녘의 메추라기는 가련함의 정취로서 읊어졌으나 바쇼는 이와는 다르게 자신의 목숨을 지킬줄 아는 강인한 새의 소리로 표현하였다. 낮 동안에는 매의 눈을 피하여 숨고, 매의 눈이 어두워지자 이윽고 울기 시작하였다고 나타내고 있다. 鷹는 메추라기등의 작은 새를 잡아먹는다. 매의 눈은 날카롭고 포획물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예리한 매의 눈도 지금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위가 어두워지니 메추라기가 울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 해에 걸쳐있는 구름이여 잠깐의 철새무리들  
 548 日にかかる雲やしばしのわたりどり  
 오동나무야 메추라기 우짖는 담벼락 안쪽  
 545 桐の木にうづら鳴くなる塀の内  
 매의 눈도 지금은 저물었다 우는 메추리  
 546 鷹の目もいまや暮ぬと啼うづら

### 3.4 겨울

바쇼에게 있어서 겨울은 헤어짐의 계절이 아니라 만남의 계절이다. 바쇼는 만남의 기쁨과 만남에 대한 믿음직스러움을 구로서 표현하고 있다. 1687년 작품인 799번 구는 杜國을 만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鷹는 晩秋에서 겨울에 걸쳐 남쪽으로 이동하는 새이다. 노래에 흔히 읊어지고 있는 ‘이라고의 매’ 한 마리를 하늘에서 발견한 기쁨은 杜國을 만난 기쁨을 포함하고 있다. 800번 작품은 799번 작품과 같은 해에 읊은 것으로, 꿈속에서 본 매보다도 현실에서 매의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니 한층 믿음직스럽게 느껴진다고 읊고 있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杜國을 만나 그 건강한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매 한 마리 발견하니 기쁘네 이라고 산부리  
799 鷹一つ見付けてうれしいらご崎  
꿈속보다도 생시에 만난 매가 믿음직하네  
800 夢とりも現の鷹ぞ頼母しき

바쇼는 1687년 작품인 803번 구를 통하여 밤하늘의 별을 읊고 있다. 바쇼는 계절의 끝인 겨울이 가지고 있는 마침이나 죽음·폐쇄·시련 등의 이미지보다는, 별을 노래함으로써 희망과 꿈을 품게 하며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호시자키’의 ‘호시’는 ‘星’을 뜻한다. 밤하늘 별빛이 좋은 호시자키의 밤하늘에 물떼새가 울고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린다. 호시자키의 야경을 보라고 우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호시자키는 물떼새의 명소이다. 물떼새는 바다나 강에 살며 무리 지어 난다. 모습 뿐만 아니라 우는 소리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부터 詩歌에서 친숙하게 읊어져 왔다. 그러나 겨울은 만물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계절이며, 생명체에 따라서는 죽음을 맞기도 하는 계절이다. 바쇼에게 있어서도 겨울은 일시적인 정지·머뭇의 계절이기도 하다. 804번은 1689~90년 작품으로서 初夜<sup>22)</sup>에 물떼새가 날아 머무를 곳에 내려앉는다는 의미이다.

호시자키의 밤구경 권하느라 우는 물떼새  
803 ほしぎきの闇をみよとや啼ちどり  
물떼새 날아 깊어 가는 초저녁 히에 내리네  
804 千鳥立更行初夜の日枝おろし

겨울은 흰색의 계절이고 추위의 계절이다. 바쇼는 바닷가의 하얀 포말로 겨울의 상징색이라 할 수 있는 흰색을 표현하고 있고, 깃털 옷을 사용하여 겨울의 추위를 부드럽게 읊고 있다. 1684년 작품인 801번은 오리 소리를 어렴풋하게 희다고 읊고 있다. 오리는 물새로서 대부분이 겨울철새인데 헤엄도 잘 치고 잠수도 잘하며 무리를 이루며 살아 간다. 바쇼는 그러나 이러한 오리의 특성은 접어 두고 단지 오리의 소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구를 완성하고 있다. 바다 위에 얽게 어둠이 깔리고 하얀 포말이 반짝이고 있는데 마침 오리의 소리가 들려온다. 흰색은 바다의 포말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하얀 눈이나 서리 등이 연상되어 추운 겨울을 느끼게 한다. 1693년의 802번 구는 강추위 속

22) 六時の 하나로서 한 밤을 初夜·中夜·後夜로 3분한 것의 처음의 명칭이다. 현재의 시간으로 고치면 오후 7시 무렵부터 9시 무렵까지를 말한다.

의 오리를 노래하고 있다. 갓옷(ケゴロも)은 새의 깃털로 만든 옷이다. 오리의 짧은 다리가 배 부분의 깃털에 감싸여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리가 매서운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읊고 있다.

- 바다 저물고 오리 소리 어렴풋 하이얏구나  
 801 海くれて鴨のこゑほのかに白し  
 갓옷 속에 감싸여져 숨겨진 오리의 다리  
 802 ケゴロもにつつみてぬくし鴨の足

#### 4. 결 론

바쇼의 홋쿠 중 새를 계어로 한 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점이 있다. 그것은 새가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읊지 않았으면서도<sup>23)</sup> 飛上의 중요 부분인 날개나 깃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날다’ 또는 ‘춤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는 날짐승이고 飛上할 때 비로소 새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바쇼는 새를 계어로 사용하고 있는 구(65 さかづきにどろな落しそ飛燕→さかづきにどろな落しそ舞燕→盃に泥な落しそむら燕)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제비(飛燕)’ 또는 ‘춤추는 제비(舞燕)’ 대신 ‘제비떼들(むら燕)’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구를 완성하였다. 흙탕물을 술잔에 떨어뜨리는 제비는 분명 날고 있는 제비이다. 제비가 날개를 펴서 빠르게 나는 모습을 ‘飛燕·舞燕’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떨구지 말게나(落しそ)’라는 말속에 넣어 버린 것이다. 바쇼가 말년인 1692년에 지은 61번 구 ‘鶯や餅に糞するえんの先는 더욱 발전하여 ‘떨구다(落し)’라는 말까지도 생략하고 鶯의 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바쇼는 위와 같이 날아가거나 또는 날기 위하여 날개짓을 하는 새를 묘사하기보다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우는 새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계절감을 드러냈다.

새를 통하여 나타난 사계절 이미지의 특징은 봄과 가을이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새에 의하여 보여지는 바쇼의 봄은 希望의 계절이나 生命이 움트는 再生의 계절이라는 밝은 이미지는 없었다. ‘새가 떠난 후의 동지’를 통하여 쓸쓸함을 나타내고 있고(71), 물떼새를 통해서 는 방향을(72), 꿩 울음소리에서는 그리움을 드러냄으로서(66) 어두운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었다 심지어 꿩 소리에 오싹해지기까지 했으며(67), 참새새끼와 쥐새끼 소리가 섞여 들린다는 표현을 씀으로서 징그러운 느낌까지 들게 했다. 휘파람새의 소리도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었고, 먹는 음식에 새똥을 떨구고 가는 말쑥쟁이의 소리였으며(61), 봄의 전령이어야 할 제비도 술잔에 흙탕물을 떨구고 날아가는 개구쟁이처럼 묘사되었다(65). 새들은 화려한 꽃 위보다는 수수한 버드나무나 덩굴에서 노래했다(60). 그러나 바쇼가 새를 통해 드러내는 겨울의 이미지는 독특하다. 다른 계절에 보이지 않는 ‘기쁘네(799 鷹一つ見付けてうれしいらご崎うれし)· 믿음직하네(800 夢とりも現の鷹ぞ頼母しき)’ 등 밝은 이미지의 단어가 보인다. 지명으로서 사용된 것이긴 하나 희망의 상징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별이라는 단어(ほしぎき)도 사용되었다(803). 두 번째 상반된 이미지는 바쇼는 봄이 만남의

23) 水墨畫의 寒鴉古木の 畫題를 읊어서 종래 가지고 있던 가을 저녁의 이미지를 충실하게 배가시키고 있는 ‘枯枝に鳥のとまりけり秋の暮れ(417)’에서 보이는 것 같이, 季語로서 사용된 새의 句에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가 없다. 참고 『바쇼의 홋쿠에 나타난 계어 연구』 『일본연구(18)』(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 p.141-142

계절이 아니라 이별의 계절임을 ‘기러기’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69). 그러나 바쇼에게 있어 겨울은 헤어짐의 계절이 아니고 만남의 계절이다(799).

여름은 두견새와 기타 새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바쇼는 두견새의 구에서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존중하였으며, 구가 많은 만큼 그 이미지도 다양하였다. ‘여름은 역시 두견새’라는 생각이 담긴 구를 작성하였고(309), 5월·여름새로서의 두견새(314), 그리고 두견새의 소리를 고대하는 심경이 드러난 구가 많았다(301·303·310·311). 두견새의 소리를 형용할 때 ‘향기를 사용해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듣고 싶다는 느낌을 강조하였고 이와 함께 소리의 향기를 느끼게 하였다(302·312). 두견새 소리를 바닷물결과 함께 형상화시켜 음악적이면서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315). 바쇼 말년인 1694년의 두견새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와 조화를 이룬다. 목청껏 내지르는 오징어 장수의 소리와 두견새의 소리를 분간 못하겠다(317 鳥賊賣の聲まぎらはし杜宇)고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두견새를 제외한 기타 새 즉, 뜰부기·뺨꾸기·휘파람새·개개비 등 여름새들은 人間事 표현을 위한 좋은 소재로서, 또는 바쇼 자신의 감개를 펼치는 소재로서 사용되었다. 獨居·閑寂의 즐거움을 드러내기도 하였고(318), 한 여름 낮의 한가로운 정경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을 드러내는 구(320)를 읊기도 했다. 여름은 푸르름이나 젊음의 계절은 아니었고 圓熟의 계절이었다. 죽순 덩굴 속에서 휘파람새는 젊음을 노래하지 않고 늙음을 읊었기 때문이다(319). 이러한 이미지들은 같은 여름에 읊어진 두견새의 소리가 화살촉에 스치며 우는 아픔의 소리(305) 또는 원망의 소리(307)이기도 한 것과 비교해 독특한 표현이다

바쇼는 가을 참새를 통해 풍요로움을 표현하기도 한다(547). 그러나 가을이 만물이 衰落하는 계절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의 凋落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임을 상징하는 구를 짓기도 했다(544). 가을은 인생에 있어서 노년에 해당할 것이다(549). 철새와 구름을 하나의 구에 넣어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떠남·사라짐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한 구(548)를 통하여 가을의 무상함을 보이고 있다.

## 【參考文獻】

- 朴順萬 『日本人의 詩情 俳句篇』, 成文閣, p.55~149
- 尾形つとむ編(1980) 『俳句의 解釋と鑑賞事典』, 旺文社
- 水原秋櫻子編 『俳句鑑賞辭典』, 東京堂出版
- 栗山理一監修·尾形 つとむ外 2人編集(1980) 『綜合芭蕉事典』, 旺文社
- 大谷篤藏·中村俊定(1979) 『芭蕉句集』(日本古典文學大系45), 東京岩波書店, p.17~241
- 杉浦正一郎(1979) 『芭蕉文集』(日本古典文學大系46), 東京岩波書店 p.69~100
- 井本農一·堀信夫·村松友校注·譯者(1988) 『松尾芭蕉集』(日本古典文學全集41)小學館 p.45~282
- 富安風生外6人編輯(1983) 『俳句歲時記(夏)』, 平凡社 p.410~416

## 要 旨

芭蕉は動物關係の季語の中で、獸とか昆虫・魚・害虫などに関する季語よりも、鳥の季語をたくさん使って、句を完成した(動物の季語の發句數95,鳥の季語の發句數48)。特に夏には、鳥の季語が多かったが、これは時鳥という季語のためだと言える。(夏の鳥の季語の發句數23,時鳥の季語の發句數7)

芭蕉の發句の中で、鳥を季語として使っている句では、共通点がある。それは鳥の止まっている姿を詠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水墨畫の畫題にある「寒鴉枯木」などを詠った句はない。しかし、このように鳥が止まっている姿を詠っていない反面、飛翔の重要な部分と言える羽か羽毛という言葉は使っていない。飛ぶ・舞うという言葉を使うのに慎重な態度を取っている。

鳥を通して表れている四季のイメージの特徴は、春と秋のイメージが相反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鳥によって表れている春のイメージは、希望の季節だとか、再生の季節だとかという、明るいイメージはなかった。しかし、芭蕉の鳥を通して表れている冬のイメージは獨特であると言える。春・夏・秋の季節には見えなかった「うれし・頼母しき」などの明るいイメージがあったのである。夏は「時鳥」と「その他の鳥」と分ける必要がある。芭蕉の時鳥の句では伝統的なイメージを尊重した句とそうでない句がある。時鳥の句は多いほどそのイメージも多様であった。時鳥を除いた夏の鳥は、世の中の表現の良い素材として、或は芭蕉自身の感懐を広げる素材として使用された。芭蕉は秋の鳥では、豊か・凋落・老年・無常などのイメージを表出している。

キーワード：漢芭蕉、發句、自然、季節、季語、動物、鳥、時鳥

투 고 : 2004. 5. 31  
1차 심사 : 2004. 6. 12  
2차 심사 : 2004. 7. 3

住 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목동아파트 731동 206호

電 話 : (02)2642-4943

E-mail : ndsun2002@hanmail.net